

청소년 TV 시청행태 및 이용자 특성 분석

2008. 3. 15

요약

- I. 서론
- II. TV 시청행태 분석
 - 지상파 및 케이블 매체 간 비교
- III. 이용자 특성 분석
 - 가정의 경제 수준, 교육 수준 및 프로그램 등급제 관련
- IV. 결론 및 함의

《 요약 》

- 새로운 매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TV의 영향력은 여전히 수위(首位)를 유지
 - 2006년 기준 인터넷 이용시간은 13.7시간, TV 시청시간은 15.9시간으로 TV가 여전히 청소년들의 가장 긴 매체 소비시간을 확보한 미디어임을 알 수 있음

- 청소년 대상 지상파 소구력 감소, 반면 케이블은 증가
 - TV 시청량에 대한 시계열(2002~2006) 분석 결과, 지상파의 소구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케이블은 증가하여 2002년 약 5배에 달했던 지상파와 케이블 간의 시청량 격차는 불과 5년 만에 2배도 안되는 수준으로 하락
 - 이는 청소년 시청집단 특유의 ‘선택적 시청 성향’ 과 관련된 것으로 이들은 ‘캐릭터’와 ‘스타’에 대한 출연 여부 및 선호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나 스타를 ‘따라다니며 보는데’ 보다 용이한 케이블 매체에 대해 더 큰 소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 청소년, 주말에는 케이블보다 지상파의 견고한 아성(牙城)에 안주
 - 전반적으로 케이블에 대한 지상파의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주말 만큼은 지상파의 ‘막강 파워’가 유지되고 있는데, 지상파-케이블 간의 시청률 격차가 평일에는 크게 벌어지지 않지만 주말에는 2~4배 가량으로 늘어남

- 평일 미니시리즈,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지상파-케이블 시청률 경쟁의 승부처
 - 청소년 시청률 변화 추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결과, 역시 킬러 콘텐츠 확보 여부가 매체 간 시청률 경쟁을 가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됨을 알 수 있음
 - 평일의 경우, 지상파는 미니시리즈가 시작되는 22시 무렵에 중고생 모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지만(21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3시 이후 하락), 케이블은 동 시간대에 완만하게 하강하는 추세
 - 한편 주말의 경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19시 주변에서 지상파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지만, 케이블은 동 시간대 지상파의 상승 곡선과 거의 대칭 혹은 거울 형태로 하강하고 있는데 이는 킬러 콘텐츠의 시청자 유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i)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ii)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iii) 주거 형태가 자

가(自家)일수록, (iv)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은 하락하는 것으로 확인됨

- 특히 주거 면적 부분에서 가장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최상위 집단인 '8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지상파 시청량(일 평균)이 13분에 불과한 반면 최하위 집단인 '20평 미만'의 경우 그 5배가 넘는 67분에 달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과 연관하여 추측해 볼 수 있는데, 즉 부모의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녀에 대한 TV 시청 규제 및 지도 행동은 강화되기 때문임

□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시청 비율 여전히 높은 편

- 최근 완만하게 TV 시청량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시청량 대비 심야 시간대(24시~02시) 시청량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호시간대 연장 등 청소년 시청 지도에 대한 보다 진지한 논의가 활성화될 시점에 도달했다고 판단됨

□ '금단의 열매' 효과로 인해 등급외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시청 점유율 높은 편

- 케이블의 시청률 상위 채널 중 대부분의 등급외 프로그램들에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시청 점유율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에서도 이른바 '금단의 열매' 효과로 인한 등급외 프로그램의 청소년 시청자 유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근 TV 프로그램 편성이 청소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연예오락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소비에 있어 편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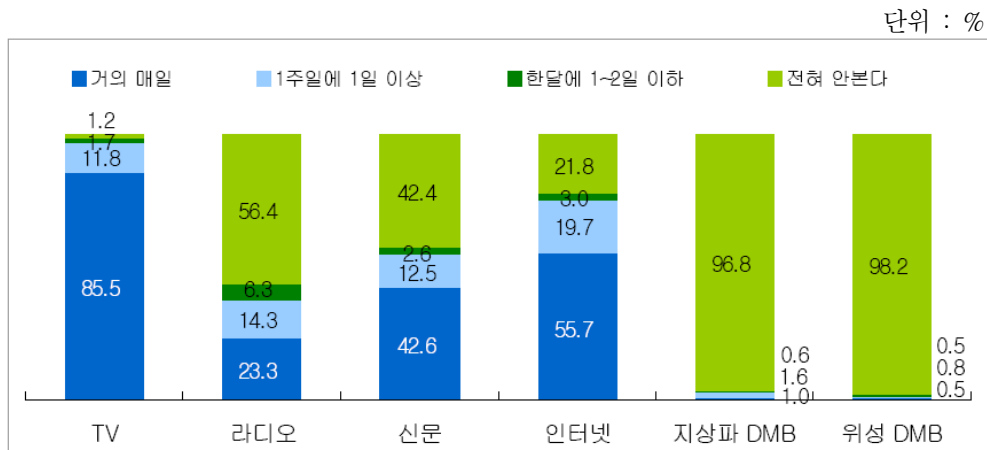
□ 따라서 이번 보고서의 분석 결과를 참조하여 보다 교육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청소년 주시청 시간대에 배치함으로써 TV로 인한 부정적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한편 친사회적 행동을 유발할 수 있는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특히 TV 시청행위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규 TV 프로그램 포맷개발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 기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임

I. 서론

-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 발전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속속 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TV는 가장 중요한 매체가 되고 있음
 - 2006년 말 현재, 전체 국민의 85.5%가 ‘매일’ 혹은 ‘거의 매일’ TV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방송위원회, 2006)

매체별 이용 정도



(출처) 방송위원회(2006), TV 시청행태 연구

- 또 다른 조사에서는 기분 전환, 스트레스 해소나 습관적으로, 흥미/오락거리 등의 세 항목에서 50% 이상이 1순위로 이용하는 매체가 TV라고 답하여, TV가 여전히 가장 강력한 여가활동 매체임을 알 수 있음(MBC, 2007)
 - 특히 이 보고서의 분석 대상에 포함되는 15~18세 남녀의 경우, ‘다른 사람들과 대화거리를 얻기 위해 TV를 시청’하거나, ‘기분전환/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청’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청소년들에게 있어 TV는 여가 및 사회적 관계 형성의 중요한 통로가 됨을 알 수 있음

TV 시청목적

단위 : %

구분	전체	15~18	
		남성	여성
기분전환/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시청	51.6	11.1	26.0
특별한 목적 없이 습관적으로 시청	51.5	14.8	24.0
심심할 때 흥미/오락거리로 시청	50.5	7.4	16.0
다른 사람들과 대화거리를 얻기 위해 시청	46.9	20.4	20.0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시청	41.2	14.8	16.0

(출처) MBC(2007), 시청자 관심사 조사 보고서

□ 청소년의 높은 TV 의존도와 비례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TV의 영향력에 대한 학계의 관심과 연구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

- 먼저 긍정적 영향으로는 TV 시청을 통해 청소년들은 지적인 면과 사회성을 발달시키며 지식을 제공하고 사고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김수정, 2000), 학업에 매달려 쳇바퀴를 도는 듯 한 삶을 사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간접경험과 넓은 세상의 이야기를 전하는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 시청한 프로그램의 성격과 시청태도 및 동기 등에 따라 고등학생 시청자에게 친사회적 태도 - 이타주의, 신뢰감, 안전감 - 가 형성된다는 점 등이 있음(김정기, 1999)
- 한편 부정적 영향으로는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에 자주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점, 비도덕적이거나 비관적인 내용들로 채워진 TV 프로그램을 접하는 청소년들은 세상이 부패했다는 뼈뿔어진 가치관을 가지거나 비도덕적 가치관을 무의식중에 배우게 되어 결국 청소년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상업적이고 소비지향적인 콘텐츠들은 청소년들의 문화를 대중적이고 상업적이며 획일적인 것으로 만들어 유행을 좇는 청소년들에게 과도한 소비를 부추기는 현상을 낳게 한다는 점 등이 있음(김수정, 2000)

□ 최근 몇 년 새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트렌드에 민감하고 새로운 매체에 대한 호기심과 적응력이 빠른 청소년들에게 보다 빨리 전파되어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촉진하게 될 것임

- 특히 DMB, WiBro, IPTV 등 대체 미디어의 출현 및 신규 콘텐츠 소비 경로의 등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매체 소비 패턴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진화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이런 상황에서 현재 청소년들의 주 이용매체인 텔레비전의 시청행태 및 이용자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은 향후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가정과 학교 내에서 미디어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보고서에 사용된 데이터들은 시청률 조사 전문기관인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가 전국의 1,550가구를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임
 - 분석대상 채널 : 지상파 전 채널 및 케이블 107개 채널¹⁾
 - * DMB, IPTV 등 신규 미디어를 통해 지상파 및 케이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는 조사에서 제외
 - 분석지역 및 시간대 : 서울 / 당일 오전2시에서 익일 오전 1시 59분까지(24시간)
- 용어의 정의
 - ‘청소년’의 정의와 관련하여서는 (i) 만 19세 미만의 자(청소년보호법), (ii)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청소년기본법), (iii) 13세~24세(문화관광부 ‘청소년 백서’), (iv) 12세~22세(한국교육개발원) 등 다양한 기준이 존재하지만 통상적으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인구집단을 지칭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서도 이와 같은 분류를 따르기로 함
 - 시청량(ATV; Average Time Spent)은 분석 기간 동안의 가구나 개인의 평균 시청시간
 - 시청률은 분석 기간 동안의 가구나 개인이 그 당시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가구 또는 개인의 총수에 대한 비율

1) 2006년 10월 8일 현재의 케이블 채널 현황

II. TV 시청행태 분석

새로운 매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TV의 영향력은 여전히 수위(首位)를 유지

□ 뉴미디어 및 인터넷 이용 시간 증가

- 2006년 말 현재, DBM 이용시간은 지상파 DMB 62.3분(평일), 81.5분(주말), 위성 DMB 53.6분(평일), 45.5분(주말) 등이며 점차 늘어나고 있음
-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증가 추세, 반면 TV 시청시간은 감소 추세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 및 TV 시청시간 비교

단위 : 시간

구분	2004	2005	2006
인터넷 이용시간	11.7	13.3	13.7
TV 시청시간	16.9	16.2	15.9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4-2006),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 한편 인터넷 이용 경험 이후, “TV 시청시간이 감소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5년 대비 2006년에 0.8%p 증가하여 인터넷 이용이 TV 시청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TV 시청시간 변화(인터넷 이용자 대상)

단위 : %

구분	2004	2005	2006
늘었다	-	3.6	1.5
변화 없다	-	60.3	61.5
줄었다	-	36.1	36.9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4-2006),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 그러나 현재 타 매체 대비 청소년의 TV 의존도는 가장 높은 수준

- 시계열 추이 분석 결과, 타 매체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TV 시청량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청소년 연도별 TV 시청량 추이

단위 : 시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중학생	1.90	1.88	1.98	1.96	1.85
고등학생	1.88	1.76	1.82	2.17	1.68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2002-2006), 하반기 정보화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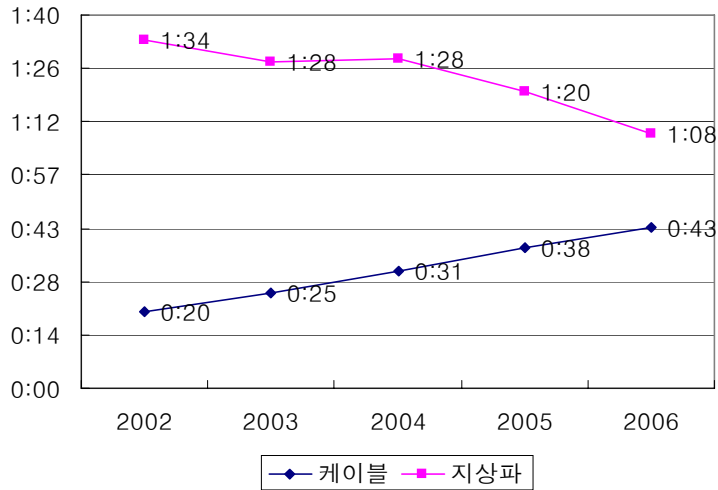
- 또한 격차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2006년 기준 인터넷 이용시간은 13.7시간, TV 시청시간은 15.9시간으로 TV가 여전히 청소년들의 가장 긴 매체 소비시간을 확보한 미디어임을 알 수 있음

청소년 대상 지상파 소구력 감소, 반면 케이블은 증가

- 먼저 시청량에 대한 시계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상파의 소구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케이블의 소구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 대비 2006년의 지상파-케이블 간의 격차가 5배 가량에서 2배도 안되는 수준으로 감소
- 2002년 대비 2006년에 중학생은 49분 감소(74분→25분), 고등학생은 48분 감소(73분→25분)

중학생 연도별-매체별 시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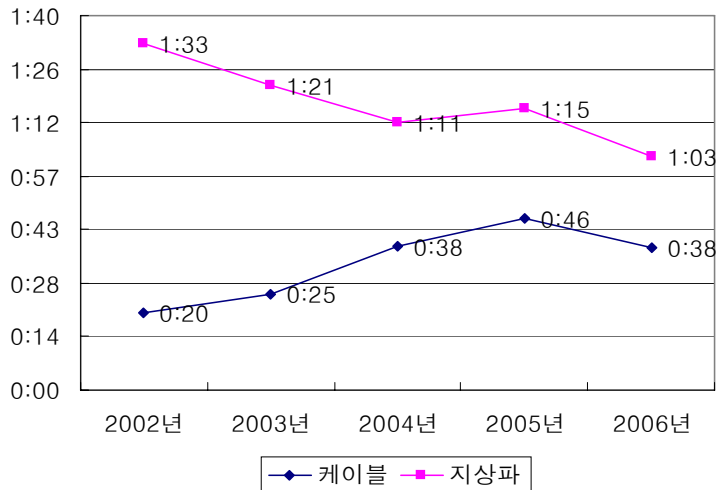
단위 : 시간, 분



(주) 분석 기간 : 2002.01.01 ~ 2006. 12.31

고등학생 연도별-매체별 시청량

단위 : 시간, 분



(주) 분석 기간 : 2002.01.01 ~ 2006. 12.31

□ 또한 두 매체 간의 시청률 격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차이가 2006년 기준으로 중학생의 경우 1.8%, 고등학생의 경우 2.9%로 줄어들었다

지상파-케이블 간 시청률 격차(중학생)

단위 : %

일일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상파	6.7	6.1	6.1	5.6	4.8
케이블	1.4	1.8	2.2	2.6	3.0
매체 간 격차	5.3	4.3	3.9	3.0	1.8

(주) 분석 기간 : 2002.01.01 ~ 2006. 12.31

지상파-케이블 간 시청률 격차(고등학생)

단위 : %

일일평균	2002	2003	2004	2005	2006
지상파	9.0	7.9	6.9	7.2	5.9
케이블	1.7	2.1	3.2	3.6	3.1
매체 간 격차	7.2	5.8	3.7	3.6	2.9

(주) 분석 기간 : 2002.01.01 ~ 2006. 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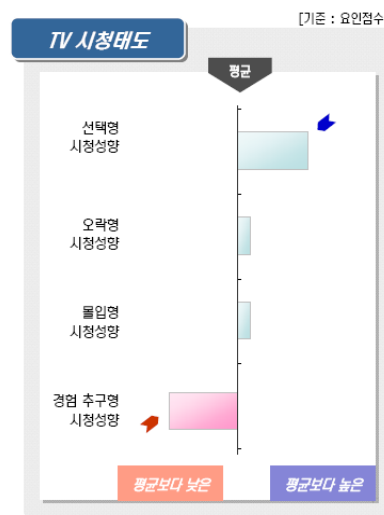
- 케이블에 대한 청소년의 소구력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먼저 채널수의 증가로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이로 인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지상파의 콘텐츠는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케이블은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킬러 콘텐츠를 풍부하게 확보함으로써 목표 시청자 유인에 성공하고 있음
-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년들의 TV 시청동기와의 연관 지어 해석할 수 있음
 - ‘라이프스태이지별 시청자 특성’에 따르면 15~18세 남녀의 경우 ‘선택형 시청 성향²⁾’이 강한 것으로 조사됨(MBC, 2007) → 즉 이 집단에 속한 구성원들은 ‘캐릭터’와 ‘스타’에 대한 출연 여부 및 선호도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성향이 강한 만큼 자신이 원하는 캐릭터나 스타를 ‘따라다니며 보는데’ 보다 용이한 케이블 매체에 대해 더 큰 소구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됨

2) 선택적 시청성향 : 드라마에서 중요한 것은 탄탄한 스토리 보다는 등장인물의 캐릭터다 ;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호하는 연예인의 출연 여부이다.

15~18세 남성의 TV 시청 태도



15~18세 여성의 TV 시청 태도



(출처) MBC(2007), 시청자 관심사 조사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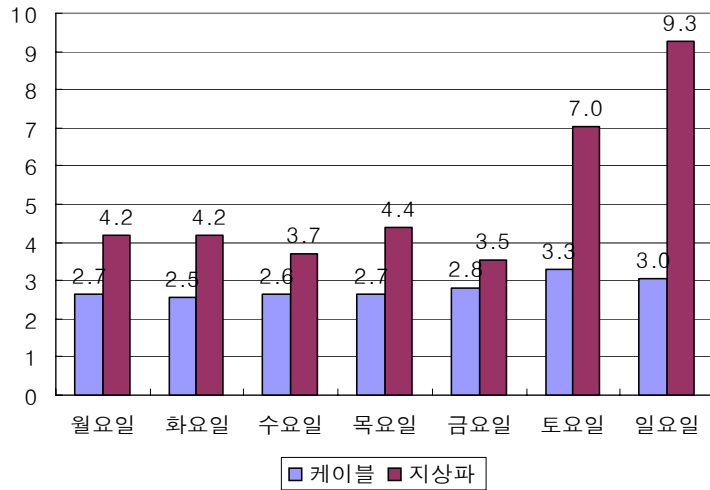
-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2006년에 케이블의 시청량이 처음으로 감소하였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멀티미디어 플랫폼의 사용에 따른 구조적인 측면과 관련된 것인지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청소년, 주말에는 케이블보다 지상파의 견고한 아성(牙城)에 안주

- 전반적으로 케이블에 대한 지상파의 경쟁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주말 만큼은 지상파의 '막강 파워'가 유지되고 있음
- 지상파-케이블 간의 시청률 격차가 평일에는 크게 벌어지지 않지만 주말에는 2~4배 가량으로 늘어남
- 이는 주말에 KBS2 <1박 2일>, MBC <무한도전>, SBS <일요일이 좋다> 등과 같은 각 방송사의 간판 오락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편성되는 것과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매체별-요일별 시청률(중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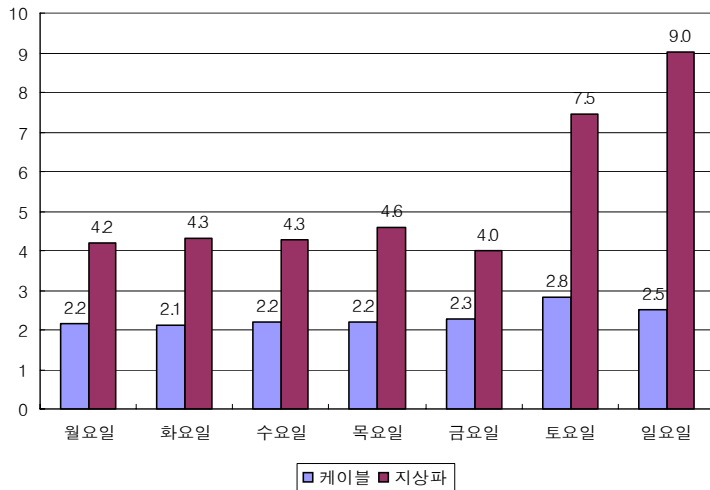
단위 : %



(주) 분석기간 : 2005.01.01 ~ 2006.12.31

매체별-요일별 시청률(고등학생)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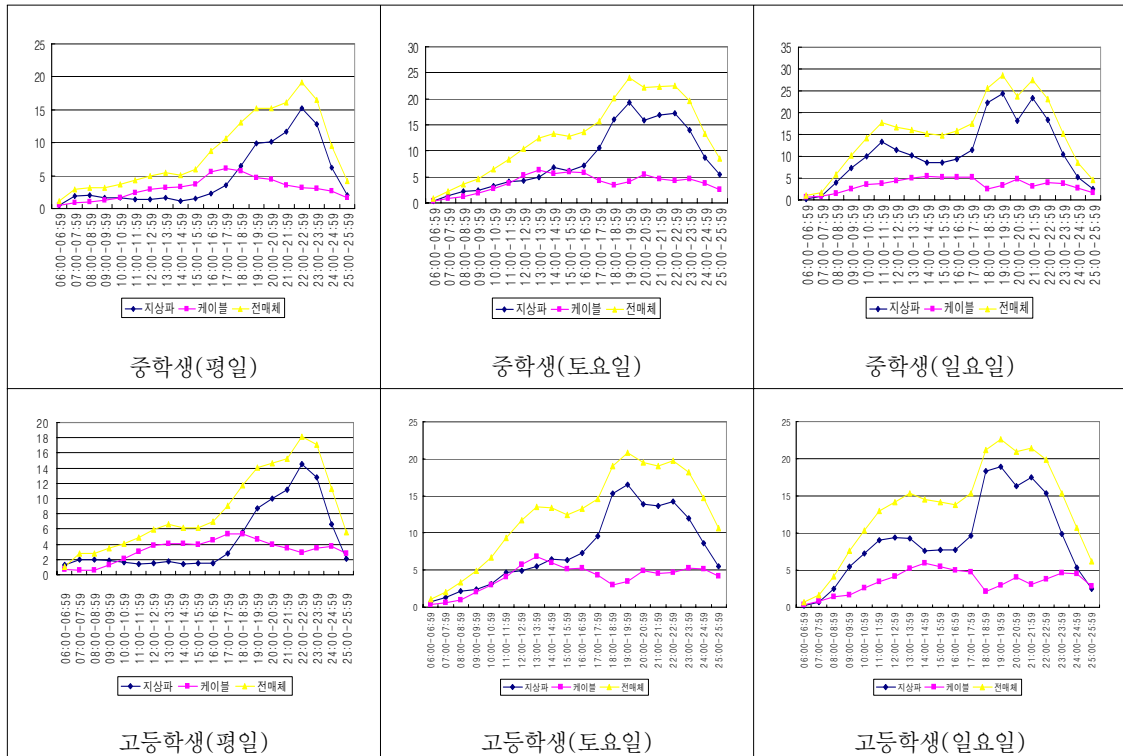


(주) 분석기간 : 2005.01.01 ~ 2006.12.31

평일 미니시리즈, 주말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지상파-케이블 시청률 경쟁의 승부처

□ 청소년 시청률 변화 추이를 시간대별로 분석한 아래 그림에 따르면, 역시 킬러 콘텐츠 확보 여부가 매체 간 시청률 경쟁을 가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됨을 알 수 있음

시간대별 청소년 시청률 변화 추이



(주) 분석기간 : 2005.01.01 ~ 2006.12.31

- 평일의 경우, 지상파는 미니시리즈가 시작되는 22시 무렵에 중고생 모두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지만(21시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여 23시 이후 하락), 케이블은 동 시간대에 완만하게 하강하는 추세
- 한편 주말의 경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 시작하는 19시 주변에서 지상파는 최고 시청률을 기록하지만, 케이블은 동 시간대 지상파의 상승 곡선과 거의 대칭 혹은 거울 형태로 하강하고 있는데 이는 킬러 콘텐츠의 시청자 유인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주말 지상파의 경우, 뉴스(SBS)와 다큐멘터리(KBS1) 등이 편성되는 20시대에 시청률이 일시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주말 오락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를 엿볼 수 있음

Ⅲ. 이용자 특성 분석

1. 가정의 경제 수준과 청소년 TV 시청과의 상관관계 분석

- 선행 연구들은 개인의 경제적 수준과 자녀의 학업 성취도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장태구, 2004)
- 가정의 경제적 수준 차이가 결국 자녀의 교육수준에 까지 영향을 미쳐 학업성취도 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임(김홍균, 문용호, 2006)
- 이러한 순환적 메커니즘의 핵심 구성 요소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 및 학습관여행동임 → 즉 보다 높은 소득을 올리는 가정이 더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듯이 고소득 가정의 부모들은 보다 적극적인 ‘학습관여 행동’을 보일 가능성을 갖게 됨(김은정, 2006)
 - ‘학습관여 행동’은 ‘부모의 기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부모의 훈육 방법’, ‘부모의 학교 접촉’ 등 네 부분으로 이루어지는데, ‘부모의 훈육방법’의 한 항목에 ‘TV 시청 규제 및 지도’라는 것이 정의되어 있으며 이는 자녀의 TV의 시청에 대한 통제 및 규칙을 통해 자녀의 학습에 관여하는 것을 말함
- 이 보고서에서는 부모의 높은 경제적 수준이 높은 학습관여 행동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높은 TV 시청 규제 및 지도로 이어져, 결국 경제적 수준의 차이가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행태에 일정한 변화를 파생시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전제하고, AGB 닐슨 미디어 리서치사의 패널가구 프로파일에 등록된 정보를 중심으로 (i) 월 가구 평균 소득, (ii) 주거 형태(자가 · 전세)³⁾, (iii) 주거 면적(주택 평형) 등 세 개의 독립변수를 설정한 후 개별 조건별로 각각의 종속변수(시청량 · 시청률)을 산출하여 그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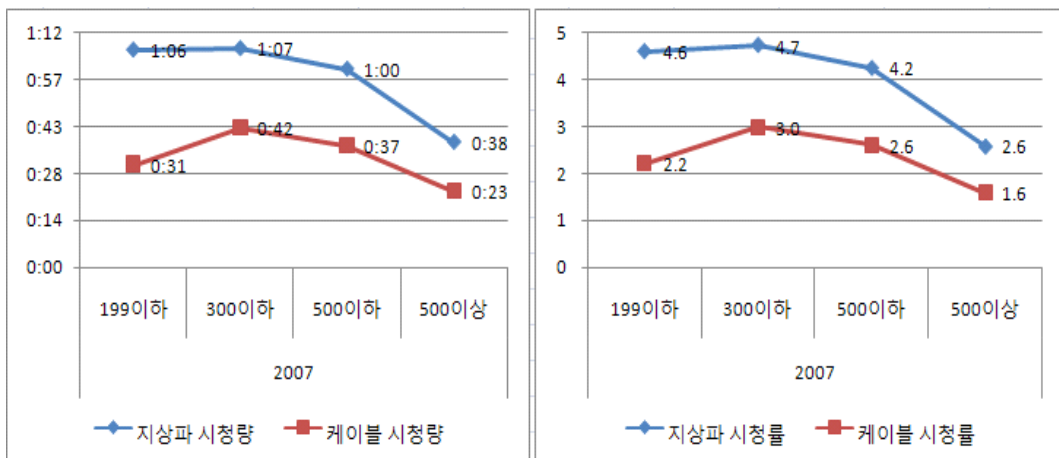
3) 이 보고서에서는 주거 형태와 주거 면적이 가정의 경제적 수준과 상당한 유의성이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분석을 실시하였음. 물론 큰 주거 면적에 살고 있음에도 주거 형태가 전세인 경우에는 작은 주거 면적이지만 자가 형태의 가정과 비교 시 그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음.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보다 세밀한 조건을 설정하기 위해 주거 면적과 주거 형태를 동시에 본 결과도 살펴보았음. 즉 자가의 가정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 면적에 따른 시청량과 시청률의 차이를 분석하였음. 결과적으로 주거 면적이 커질수록 시청량 및 시청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주거 면적과 시청행태의 상관관계 분석과 유사한 것으로서 이 보고서에서는 그 결과를 생략함.

가구 소득이 많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은 하락

- 2007년 가구당 소득 수준(월평균)에 따라 해당 가구의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상파 시청량(일 평균)의 경우, ‘300 이하’에서 전(前) 구간에 비해 1분 정도 상승한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상위 집단인 ‘500 이상’에서는 최하위 집단(‘199 이하’)과 28분의 차이 나타냄(약 42% 감소)
 - 케이블의 경우에도, 지상파와 비슷한 추이 나타내고 있음(최상위 및 최하위 집단 간 약 26% 차이)
- 이와 같이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TV 시청량 또는 시청률이 감소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부모의 학습관여 행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음

가구 소득과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

단위 : 시간, 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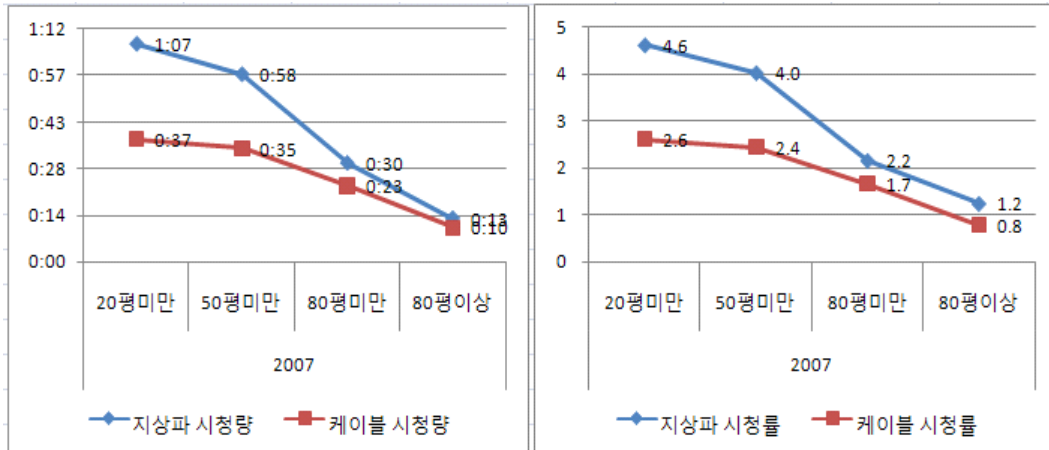
(주) 분석기간 : 2007.01.01 ~ 2007.12.31, 월평균 소득 기준

주거 면적이 넓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은 하락

- 2007년 주거 면적에 따라 해당 가구의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 자녀들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차이는 경제 수준 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남
 - 최상위 집단인 '80평 이상'의 주택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 지상파 시청량(일 평균)이 13분에 불과한 반면 최하위 집단인 '20평 미만'의 경우 그 5배가 넘는 67분에 달했음
 - 케이블의 경우에도, 최상위-최하위 집단 간 차이가 약 4배에 달함

주거 면적과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

단위 : 시간, 분, %



(주) 분석기간 : 2007.01.01 ~ 2007.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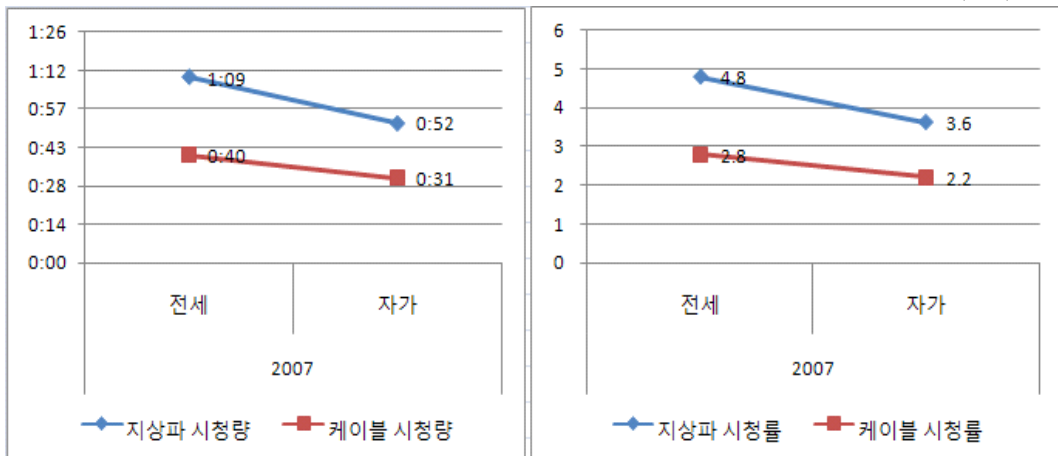
자가(自家) 주택일수록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은 하락

- 주거 형태에 따라 해당 가구의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위의 보는 바와 같이 2006년의 경우 주거 형태가 자가인 경우 자녀들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전세’의 경우, 지상파 시청량(일 평균)이 69분인데 반해 ‘자가’의 경우 52분으로 17분(약 25%) 감소
- 케이블도 동일한 추이 나타내며, 두 기준 간 차이는 9분(약 22%)임

주거 형태와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량 및 시청률

단위 : 시간, 분, %



(주) 분석기간 : 2006.01.01 ~ 2006.12.31

- 이상으로 가정의 경제 수준과 해당 가구 청소년의 TV 시청행태를 연관 지어 이용자 특성을 살펴보았음
- 결론적으로 소득 수준이 높고, 넓은 평수에 살고 있으며, 또 자가에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일수록 TV 시청량 및 시청률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타 연구에서 언급되고 또 이번 분석에 앞서 전제했던 ‘보다 경제력이 높은 집안의 부모들이 더욱 적극적인 학습관여 행동을 보이고, 그 가운데 하나인 TV 시청 규제 및 지도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일관되게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 다만 경제적 조건을 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각 가정을 지나치게 세분화한 결과, 몇몇 구간에서는 해당 조건에 속하는 샘플수가 적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났는데 추후 분석에서는 보다 많은 샘플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관건이라 하겠음

2. 부모의 교육 수준과 청소년 TV 시청과의 상관관계 분석

- 한편 선행 연구들은 부모의 학력과 해당 가정 자녀의 학력 간에 일정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최형재, 2007), 이는 ‘학력의 대물림’, ‘학력 세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치열한 논쟁거리 중 하나임
- 이와 관련 특히 흥미로운 것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자녀의 임금 간의 연관성에 대한 내용인데 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아버지를 둔 아들의 임금은 무학의 아버지를 둔 아들의 경우보다 임금이 23.8% 많았고, 전문대 이상의 학력을 지닌 어머니를 둔 아들은 무학의 어머니를 둔 아들보다 47.5%의 임금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음(김홍균 · 문용호, 2006)
- 이번 분석에서는 가정의 경제 수준이 부모의 학습참여 행동에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부모의 교육 수준이 자녀에 대한 TV 시청 규제 및 지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그로 인해 이용자 특성에 어떠한 변화 양태가 나타나는 지 살펴보았음

부모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률은 하락

세대주의 교육 수준⁴⁾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률 변화(지상파)

단위 : %

분석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청소년	5.8	5.9	4.0	2.9	3.4	3.1	4.4	4.5	4.2	3.2	3.6	4.6	4.13
초졸 세대주의 청소년	7.0	3.7	2.1	2.4	0.9	1.7	2.1	2.2	5.4	1.9	4.5	3.3	3.10
중졸 세대주의 청소년	6.6	10.8	8.8	5.3	3.5	8.0	5.4	7.1	3.2	4.3	4.2	10.2	6.45
고졸 세대주의 청소년	6.2	6.2	4.4	3.1	3.8	3.3	4.4	4.4	5.3	3.5	4.0	4.5	4.42
대졸 세대주의 청소년	5.8	5.8	4.1	2.8	3.2	3.1	4.6	4.8	4.2	3.4	3.8	4.8	4.20
대졸 이상 세대주의 청소년	4.8	5.4	2.8	2.3	3.3	1.9	3.0	2.7	2.5	2.2	2.3	3.0	3.02

(주) 분석기간 : 2007.01.01 ~ 2007.12.31

4) 세대주의 교육 수준은 부모 중 ‘부’의 경우를 기준으로 하였음

세대주의 교육 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률 변화(케이블)

단위 : %

분석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청소년	3.7	3.4	1.9	1.7	2.2	1.9	2.8	3.1	2.0	2.1	2.3	2.7	2.48
초졸 세대주의 청소년	9.7	4.9	2.7	3.1	1.1	0.0	0.0	0.3	0.0	0.0	0.0	0.0	1.82
중졸 세대주의 청소년	5.5	4.8	2.4	1.9	2.5	3.0	3.8	3.1	1.2	1.6	0.7	4.3	2.90
고졸 세대주의 청소년	4.4	4.5	2.5	2.0	2.7	2.2	2.8	2.9	2.3	2.3	2.4	2.3	2.77
대졸 세대주의 청소년	3.2	2.6	1.5	1.4	2.1	1.8	3.1	3.5	2.1	2.1	2.3	3.1	2.40
대졸 이상 세대주의 청소년	2.8	2.8	1.7	1.6	1.7	1.7	2.7	2.5	1.6	1.7	2.2	2.2	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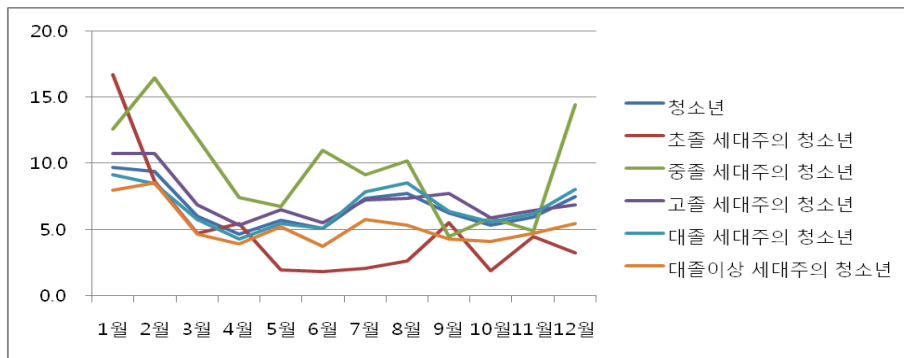
(주) 분석기간 : 2007.01.01 ~ 2007.12.31

세대주의 교육 수준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TV 시청률 변화(전 매체)

단위 : %

분석대상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평균
청소년	9.7	9.4	6.1	4.7	5.7	5.1	7.4	7.7	6.3	5.4	5.9	7.5	6.74
초졸 세대주의 청소년	16.7	8.7	4.8	5.5	1.9	1.8	2.1	2.7	5.5	1.9	4.5	3.3	4.95
중졸 세대주의 청소년	12.6	16.5	11.9	7.4	6.7	11.0	9.2	10.2	4.4	5.8	4.9	14.5	9.59
고졸 세대주의 청소년	10.8	10.7	6.9	5.4	6.5	5.6	7.2	7.4	7.7	5.9	6.5	6.9	7.29
대졸 세대주의 청소년	9.2	8.5	5.8	4.3	5.4	5.1	7.9	8.5	6.4	5.6	6.2	8.0	6.74
대졸 이상 세대주의 청소년	8.0	8.5	4.7	3.9	5.2	3.7	5.8	5.3	4.3	4.1	4.7	5.4	5.30

(주) 분석기간 : 2007.01.01 ~ 2007.12.31



(주) 분석기간 : 2007.01.01 ~ 2007.12.31

- 2007년 부모의 교육 수준에 따라 해당 가구의 청소년 자녀들에 대한 이용자 특성을 조사한 결과,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TV 시청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지상파, 케이블 및 전 매체에서 모두 중졸 세대주 보다 높은 교육 수준을 지닌 부모의 양육을 받는 청소년 자녀들에게서 일관되게 TV 시청률이 감소하고 있음
 - 특히 지상파의 경우, ‘중졸 세대주의 청소년’과 ‘대졸 이상 세대주의 청소년’ 간 시청률의 차이는 2배를 넘고 있음(6.45 : 3.02)
 - 한편 초졸 세대주의 청소년 자녀들이 지상파를 제외하고 케이블 및 전 매체에서 가장 낮은 TV 시청률을 기록하는 이유는 많은 선행 연구 결과가 보여주고 있듯이 부모의 낮은 학력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다고 가정할 때, 첫째, 이로 인해 유료 매체로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거나⁵⁾, 둘째, 이러한 가정의 청소년들은 가사를 돕거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돕기 위한 활동이 상대적으로 빈번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부모의 TV 시청 규제 및 지도 보다는 이러한 생계 활동들로 인한 시청제약이 해당 집단의 시청률 하락을 초래한 원인이 되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음
 - 한편 월별 TV 시청률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고졸, 대졸, 대졸 이상의 세대주의 청소년 자녀의 경우 그 그래프의 변화가 완만하고, 방학 기간 동안 다소의 시청률 상승 추세가 나타나는 등 전체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이지만 초졸과 중졸의 세대주의 청소년 자녀의 경우에는 그 그래프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음
 - 이같은 형태로 미루어 볼 때 고졸, 대졸, 대졸이상의 세대주의 가정에서 TV 시청지도가 더 지속적이고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5) 케이블의 경우, 초졸 세대주 청소년 자녀들의 TV 시청률이 1월 이후 급격히 감소하다가 7월 이후에는 거의 시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심층 분석 및 타 년도의 데이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3. 프로그램 등급제와 청소년 TV 시청

청소년의 심야시간대 시청 비율 여전히 높은 편

- 최근 완만하게 TV 시청량이 하락하는 추세에 있지만 전체 시청량 대비 심야 시간대(24시~02시) 시청량 비율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 보호시간대 연장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임

중학생 심야시간대 TV 시청량 비율(전체 시청량 대비)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상파	22.8	21.8	21.9	22.4	23.5	23.4
케이블	13.7	12.6	11.9	9.8	10.3	11.1
전 매체	20.2	18.8	18.8	17.8	18.0	18.4

(주) 분석기간 : 2002.01.01 ~ 2007.12.31

고등학생 심야시간대 TV 시청량 비율(전체 시청량 대비)

단위 : %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지상파	22.4	22.0	25.6	23.6	23.4	22.4
케이블	12.8	12.7	13.3	10.2	10.4	12.4
전 매체	19.5	18.6	20.2	17.8	18.0	18.6

(주) 분석기간 : 2002.01.01 ~ 2007.12.31

‘금단의 열매’ 효과로 인해 등급의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시청 점유율 높은 편

- 타 채널에 비해 폭력·선정적인 내용을 방송하여 방송위원회로부터 경고 등을 받은 바 있는 3개 채널(Super Action, tvN, XTM)의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 중 15세 이상 시청가 및 19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 시청 점유율을 분석하였음

케이블 '15세 시청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및 중학생 시청 점유율

단위 : %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시청 점유율
이레이저	Super Action	1.91681	13.56
프리즌브레이크	Super Action	1.66105	39.12
트리플에스	Super Action	1.39565	10.30
E#NEWS	tvN	1.60973	82.97
현장토크쇼택시	tvN	1.60762	14.54
위험한동영상 Sign	tvN	1.23218	13.80
007어나더데이	XTM	1.17868	14.90
방탄승	XTM	0.56482	20.61
레인디어게임	XTM	0.35088	8.40

(주) 분석기간 : 2007.09.01 ~ 2007.10.31

케이블 '19세 시청가' 시청률 상위 프로그램들의 시청률 및 중고생 시청 점유율

단위 : %

프로그램명	채널	시청률	시청 점유율
레옹	Super Action	1.45870	8.00
하우스오브데드	Super Action	1.32537	6.98
파이널테스티네이션	Super Action	0.41377	2.82
리얼스토리모	tvN	1.15396	16.97
독고영재의현장르포스캔들	tvN	1.07811	3.14
김구라의위자료청구소송	tvN	1.04220	46.52
연애의목적	XTM	0.39284	8.26
썸머타임	XTM	0.11879	19.10
육체의거래	XTM	0.08001	37.50

(주) 분석기간 : 2007.09.01 ~ 2007.10.31

- 위의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제시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에서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의 시청 점유율이 10% 이상을 기록하는 것으로 나타나 등급의 프로그램들이 '금단의 열매' 효과로 청소년 시청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특히 19세 등급으로 분류된 '육체의 거래', '썸머타임' 등의 성인용 영화와 '리얼스토리모', '김구라의 위자료 청구소송'과 같은 선정적인 프로그램들의 청소년 시청 점유율은 20~5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 v-chip 도입 및 디지털 수신장비를 이용한 기술적 보호 장치 부착 의무화 적극 검토 필요

IV. 결론 및 함의

□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의 요약 및 함의는 아래와 같음

- 인터넷, 핸드폰 등 많은 미디어 매체들의 등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TV를 통해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청량 및 시청률은 2002년 이래 지속적으로 줄고 있지만,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미디어 가운데 TV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크다고 할 수 있음
- 청소년들의 전체적인 TV 시청량은 완만히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케이블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 특히 요일 및 시간에 관계없이 케이블 소비 수준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 이는 청소년 사이에서 케이블 갖는 비중이 커져 가고 있음을 보여줌
- 지상파의 시청행태가 청소년들의 생활패턴 및 해당 시간대에서 주력으로 방송되는 프로그램 장르의 특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살펴볼 때, 지상파는 여전히 청소년들이 여가시간 및 선호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한 가장 주요한 통로임을 짐작할 수 있음
- 가정의 경제적 요소(가구 소득, 주거 형태, 주거 면적 등)가 청소년 자녀의 이용자 특성에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이는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주장된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수집된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님
- 프로그램 등급제와 관련하여 2002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22시 이후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TV 시청 시간은 여전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특히 케이블의 경우 시청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 케이블에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프로그램의 양이 늘고 있다는 점과 연관지어볼 때 우려를 갖게함
- 한편 프로그램 등급제의 효율성과 관련하여서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단의 열매’ 효과로 인해 등급외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시청점유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청소년들의 접근을 본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방안 도입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 본 연구는 시청률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한계를 조금이나마 극복하기 위해 여러 문헌을 토대로 그 결과에 대한 해석적 논리를 보완하였음
- 하지만 현상에 대한 보다 구조적이고 내재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나 FGI(focus group interview)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통상 청소년이라 하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인구집단을 지칭하며, 이들은 아직 성인과 같은 확고한 가치관을 성립하지는 못한 상태로, 여러 요인들에 의해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영향을 받게됨
- 이런 상황에서 TV는 청소년들이 보내는 여가 시간 가운데 많은 부분을 함께하는 매체로 그 활용의 방법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 특히 최근 TV 프로그램 편성이 청소년들이 주로 선호하는 연예오락 장르에 편중되어 있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청소년들의 문화소비에 있어 편식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임
- 따라서 분석된 청소년들의 TV 시청행태에 근거해서 보다 교육적이고 다양한 문화체험 등의 효과를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청소년들의 주 시청 시간대에 배치함으로써 TV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긍정적 영향력을 배가 시켜야 할 것임
- 또한 TV 시청행위를 통해 청소년들의 창의성을 제고하고,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신규 TV 프로그램 포맷개발과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참고문헌 》

- 김수정(2000) 청소년 TV시청의 형태과 영향에 관한 연구
 김은정(2006) 재미한인가족 내 부모의 학습관여행동의 양상과 청소년기 자녀의 학업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Vol.17. No.1
 김정기(1999) 텔레비전 시청과 친사회적 태도의 상관관계-텔레비전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탐사적 연구
 김정기(1996) 한국 성인의 텔레비전 시청만족도와 시청동기, 시청태도, 시청행위, 시청 프로그램의 상관성 연구, 성곡논총, 제27권 3호, p371~401
 김정기(2005) 텔레비전 등장인물과 청소년 시청자의 의사 인간관계, 한국방송학보, 제19권 1호, 255~283
 김종남(2003) 멀티미디어 세대의 이동전화 서비스와 디지털 콘텐츠 소비, 소비자 시대, 2003. 5
 김홍균, 문용호(2006), 부모 및 부인의 교육수준과 교육투자수익률, 財政論集, 제21집 1호
 방송위원회(2006), 2006년 TV 시청행태 연구, 방송위원회
 오치선(1998) 청소년의 종합유선방송 접촉실태 및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이종은, 박선남, 박호란(2001), 일도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학업성취수준, 가족기능이 희망에 미치는 영향, 아동간호학회지 7권
 장태구(2004) 교육정도와 부(富)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동서경제연구 제16집 1호, p19~42
 최형재(2007) 2000~2005년 한국노동패널조사결과, 제8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황하성, 박성복(2007) 텔레비전 시청 만족도 형성에 관한 재고찰: 시청동기, 의사인간관계, 실재감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제21권-5
 홍순혜(2004), 부모의 이혼이 청소년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양육부모의 경제수준 및 양육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한 17호
 MBC(2007), 프로그램 소재활용을 위한 시청자 관심사 조사 보고서, 편성국 시청자연구소,
 Kaplan, S.J., & Baxter, L.A., Journalism Quarterly(1982), Antisocial and prosocial behavior on prime-time TV.
 McQuail, D., Sage(1987) Mass communication theory: An introduction.
 Rubin, A.M. Perse, E.M., & Powell, R.A.(1985), Loneliness, parasocial interaction, and local television news viewing. Human Communication Research 12, p155~180
 Schramm, W., Macmillan(1973) Men, messages and media: A look at human communication.